

정치적인 것과 소설의 운명 — 「비화밀교」론 —

송기섭*

요약

이청준의 「비화밀교」에서 진정 읽어내야 할 테마는 정치적인 것이다. 이 작품은 정치적인 것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구조화한다. 정치적인 것은 힘없는 무리들의 소음을 알아들을 수 있는 담론으로 바꾸는데 있음을 이 소설은 항변한다. 그런 점에서 이청준의 소설의 정치는, 뭇없는 자들의 평등한 몫의 분배에서 정치적인 것의 출로를 요망한 랑시에르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뭇은 치안이나 통치의 논리를 정치적인 것으로 환원하는 감정과 의식의 나눔을 통해 주어진다. 그런 까닭에 이 소설에서 정치적인 것을 논의함은 기존 정치소설의 개념 범주와는 다르다.

이 작품은 정치적인 것이 어떻게 소설에 기입되는가를 질문한다. 1부는 제왕산의 제의를 풍속의 관점에서 재현한다. 이 행사는 종화(種火)를 상징으로 매년 서로를 용서하고 정화하는 영원회귀의 신화성을 간직한다. 2부는 제의적 의례를 부정하고 횃불을 세상으로 들어올리는 넘어섬의 이야기이다. 그것이 곧 비화(秘火)의 정체이다. 비화는 밀교의 금기인 반복되어야 할 침묵을 파기한다. 횃불의 웅얼거림이 침묵에 흡입됨이 아닌 세상과 소통할 목소리가 되면서 정치적인 것이 가능해진다. 3부에 해당할 에필로그는 정치적인 것이 가능해짐으로 인하여 비로소 소설이 씌어질 수 있었음을 고백한다. 이청준에게 소설은 그렇게 정치적인 것과 운명을 함께하는 양식이었던 셈이다.

* 충남대학교 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정치적인 것, 종화와 비화, 영원회귀의 신화, 소음, 넘어섬, 목소리, 소설의 운명

목차

1. 정치적인 것
2. 종화의 영원회귀
3. 비화의 넘어섬
4. 공간과 소설의 위상
5. 소음에서 목소리로

1. 정치적인 것

이청준의 『비화밀교』는 소설에서 정치적인 것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대립시킨다. 정치의 부재와 정치의 실현으로 귀결될 이 이항대립에는 소설의 구체화하는 장소로서의 당면한 시대와, 그것을 초과하는 인간의 자유 의지로서의 보편적 정치성이 동시에 내재된다. 정치의 종언을 정치적인 것의 회귀로 이끄는 서사 과정에는 그렇게 문학에서는 늘 낮설게 여겨지는 정치가 기입된다. 여기서 정치적인 것은 사건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형상을 구획 짓기에 ‘서사적이고 선형적인 소설’의 형식에 수용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구조로서의 허구’¹⁾에 의해 가공된다. 정치적인 것을 사건으로 치환하여 사유의 대상으로,

1) 알랭 바디우는 정치적인 것의 후퇴와 부재에 당면하여, 정치를 역사의 전횡에서 해방하고 이로써 정치를 사건에 돌려주어야 함을 역설한다. 사건은 ‘허구적 가공’을 할당받음에 의하여 상황을 재편할 힘을 얻는다. 그렇게 사실들을 구성하는 사건에 정치적 진실이 있음을 보면서, 바디우는 그 정치적인 것을 사유의 산물로 여기고자 한다. (『정치는 사유될 수 있는가』, 박성준 역, 길, 2017, 14-15면, 88면 참조)

정치적 진실을 구현할 가능성으로 삼고자 하는 바디우의 이 논법은 정치와 소설을 융합할 적절한 방법을 담고 있다. 정치적인 것을 치안과 정치라는 두 원리가 충돌하는 장소에서 모색하는 랑시에르의 관점 또한 그것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의 지평에 놓인다. 그에게 정치적인 것은 통치의 과정인 치안과 평등의 과정인 정치의 마주침에서 생성된다. 이질적인 척도에서 발생하는 이 두 과정의 마주침²⁾에서 통치가 평등으로 전환될 때 비로소 정치적인 것이 작동한다. 『비화밀교』의 이항대립에는 통치의 과정인 치안과 평등의 과정인 정치가 기저에 설정된다. 그것이 바로 이 작품에서 정치적인 것을 해명해야 하는 이유이다.

정치적인 것은 임의적 사건으로 허구적 진실조차 허용하는 구성의 역능에 의하여, 그리고 해석을 거쳐 생산된다. 『비화밀교』의 정치적인 것은 그렇게 진실의 탐구 대상으로 주어진다. 정치적인 것은 현실의 용인이 아닌 그것의 ‘폭발’에 있음을 지시한다. 그러나 이청준은 그것을 단순히 행위의 일어남으로 그리려하기보다 사유와 탐색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서사성을 약화시키며 관념의 형식을 낳곤 하는 이청준 특유의 소설작법이 여기에 이르면 오히려 한 겹을 더하여 혼망함을 가중시킨다. 그렇게 『비화밀교』는 줄거리의 정향이 여러 갈래로 설정된다. 그것을 단순화하여 보자면, ①『비화밀교』의 이야기 흐름은 무엇인가, ②그것에 담긴 정치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③소설은 정치적인 것에 운명지워진 형식인가로 가닥 잡을 수 있다. 이러한 줄거리의 분별은 작품의 체계와도 직접 연계된다. 이를 두고 김인환은 관찰자의 지위, 대화를 통한 의미의 탐색, 작가의 위상이란 시각에서 ‘세 개의 단락으로 구성’³⁾되어 있음을 밝힌다. 물론 이 구성은 논리를 강화하는 점진적 배열이거나 부정을 통해 종합에 이

2)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13, 112면.

3) 김인환, 『천로역정』, 『외국문학』 제7호, 1985.12, 350-352면.

르고자 하는 변증법적 배치가 아니다. 그것은 이청준이 자신의 소설을 통해 끊임없이 실험했던 ‘여러 겹’의 주름이다.

주름은 결국 생각의 펼침을 위해 마련한 소설의 장치들일 터인데, 그 궁극의 내부에 ‘소설이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이 담겨 있다. 서사성을 위축시키는, 작가의 자의식이 담기고야 마는 이 반성적 질문은 『병신과 머저리』나 『소문의 벽』이 그러했듯 이청준의 글쓰기에 대한 방법론적 회의를 불러온다. 그것은 소설이 허구 이전에 담론의 특성상 작가에게 부과된 말하는 자의 자의식과 관련된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자신이 하는 말이 공감을 얻을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용인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비화밀교』와 같이 그것이 정치적인 것을 포획하고자 할 때, 그것은 더욱 가열된다. 인간 정신을 과도하게 실험하고자 하는 그의 사유하는 글쓰기에는 늘 그 정신의 절대성에 대한 추구만큼이나 어떤 장벽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물론 이청준에게 그것은 어떤 확신으로부터 발화되는 것이 아니라 회의를 거쳐 끝내 애매하게 도달하고 마는 정신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여러 겹의 관점들을 사유의 항목으로 배열하거나 비틀어 놓기에 그의 사유의 진실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는 늘 난감하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비틀어서 그것을 열어 놓거나 방임해버린다. 『비화밀교』는 그렇게 정치적인 것을 찾는 방식으로 또 한 차례 그의 관념을 실험한다.

정치적인 것이란 모티프는 이청준의 소설들을 가르는 아주 빈번하고도 핵심인 줄거리의 요인이다. 그의 소설쓰기에 대한 심각한 물음의 내부에는 거의 이러한 요소가 작동하고 있다고 전제해도 좋을 듯하다. 그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서사 구조에 체계화되어 투영되어 있음이 『비화밀교』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청준의 소설들을, 그리고 『비화밀교』를 정치소설로 규범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치소설이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런 소재를 통하여 어떤 정치 이념을 비판 또는 옹호하고 있는 작품을 지칭”⁴⁾한다면 그의 소설들은 거의 그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범상한 재현의 관점에 설 때, 이청준의 소설에서 정치적인 현상을 발견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이청준에게서 정치적인 것의 충동이란 소설의 정치, 곧 미학 안에서의 마주함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히 현상으로서 정치적 사건들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이미 충만하게 잉태되어 있는 부조리한 것들을 소통의 회로에 끌어올림을 의미한다. 소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정치의 절차가 지닌 잠재성 안에 놓음으로써, 정치적 과업의 무한성”⁵⁾이 가능하도록 감정과 의식의 실천을 통하여 정치를 매개한다.

정치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무리들에서 그 충동의 미만한 힘을 감지하고, 탈주의 불온함을 능동의 힘으로 받아들이는 장소가 곧 소설이다. 『비화밀교』는 그렇게 소설이 생성하는 정치적인 것의 절차에 대하여, 그리고 그 과정에 내재된 사건들의 정치성을 사유하고자 한다. 한 해의 넘김과 새 해의 맞이함이라는 세시의 변곡점에 고유하게 시행되어온 특정 지역의 풍속을 정치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하게 될 때, 『비화밀교』란 소설은 비로소 세상에 목소리를 얻게 된다. 글쓰기의 불가능성과 가능성을 정치적인 것에 위탁한다는 설정에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정치소설의 생경함을 넘어 미학 안에 정치를 포섭하려는 이청준의 소설의 정치이다. 그것은 김우창이 ‘주어진 것을 넘어서려는 충동’에서 시의 정치를 들여다본 그 ‘감각의 깨어남’⁶⁾을 거쳐 구현될 평등의 지평에 상응한다. 또한 그것은 문학의 정치가 작가의 정치, 곧 작가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투쟁을 몸소 실천하는 참여를 의미하지 않는다⁷⁾는 랑시에르의 단언에 그

4) 김명렬, 『정치와 개인』, 『문학과 정치』, 민음사, 1980, 224면.

5) 알랭 바디우, 앞의 책, 138면.

6) 김우창, 『시와 정치』, 『문학과 정치』, 민음사, 1980, 133면.

출발점을 두고 있다. 그런 까닭에 『비화밀교』에서 진정 읽어야 할 것은, 여러 겹의 줄거리들에서 이청준이 명명하는 정치적인 것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소설의 방법과 결합되는 공정이다. 결국 우리는 이 작품에서 소설의 정치는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탐구하면서, 적어도 이러한 구도에서 정치적인 것이 소설의 운명을 가르게 됨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종화의 영원회귀

종화(種火)는, 곧 씨불은 민속이 감싸는 깊은 정념을 동반한다. 그것은 보존되어 승계되어야 할 인간 생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가정 신앙으로서의 씨불지킴이란 풍속은 『비화밀교』에서 한 마을 혹은 집단 공동체의 햇불 행사로 전이된다. 가족 차원의 풍속은 여기서 집단적 차원의 의식으로 바뀌게 된다. 그렇게 확장된 집단적 제의는 미래의 이상적인 공동체를 암시하면서 씨불의 신성함을 햇불의 나눔이란 관계함으로 바꾸어 놓는다. 종화는 그렇게 커져이 유래되어 온 풍속 내에 머무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설 도래하는 공동체에 내맡겨지느냐의 운명에 처하게 된다. 『비화밀교』의 1부는 선달 그믐밤에 제왕산에 올라 햇불을 나누는 제의 공동체의 행사를 조승호의 시선에 따라 보여준다. 민속학자인 조승호는 그것을 일종의 ‘밀교(密敎)’라 지칭한다. “도대체 여기선 모든 것을 그저 느낌으로 전해주고 전해받을 뿐 설교할 교리나 통일된 명문의 경전이 없”⁷⁾기 때문이다. 제왕산 제의가 밀교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물(呪物)로서의 햇불과 그것을 타오르게 할 종화가 있어야 한다. 종화는 이들 햇

7)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9면.

8) 이청준, 『비화밀교』, 『이청준문학전집』 중단편소설 10권, 열림원, 2002, 70면.

불 공동체의 신성함의 기원이자 무궁한 도래를 보증하는 상징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종화를 모셔낼 종화주가 영생을 얻어야 한다.

종화는 그렇게 제왕산 의식을 승인하는 소멸해서는 안 될 나눔의 원천이다. 제왕산의 분지형 정상에 모여든 공동체는 한해동안 불씨를 지켜온 종화주가 도착하면 그것을 자신들의 햇봄에 옮겨 붙인다. 그리고 햇봄을 들고서 연령, 계층, 직업을 무화시키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는 인사를 나눈다. 그들이 장화대(藏火臺)에 불을 맡기고 산을 내려가면 그들의 제의는 끝을 맺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화대에 불을 맡은 사람이 새해의 종화주로 등극된다. 여기서 금기가 주어지는데, 모든 참가자들은 이 제왕산의 행사에 대하여 침묵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밀교’이다. 밀교는 산 아래 세속의 질서와 산 위 제의의 질서를 완전히 차단하고, 산 위 공동체를 밝혀서는 안 될 침묵 속에 묻어두어야 한다. 조승호는 밀교의 제의를 용서와 화해의 미덕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은 조승호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켜내야 할 숭고한 유산이기도 하다. 선친은 용서로서 품어주는 제왕산 제의를 통하여 ‘일본도(日本刀)’를 찔던 부역자의 오명을 씻고자 했다. 선친이 끝내 종화주의 자격을 얻게 되었음은 그 면책의 가시적 사건이다. 이러한 ‘제의적 기능’에 집착하다 보면 ‘비화밀교’는 ‘공동체적 용서’이자 ‘진정한 화해’⁹⁾로 귀속된다.

장거리 약국 사람, 우편국 직원과 금융 조합 사람들, 때로는 불온선인으로 낙인이 찍혀 고향에 숨어 사는 대처 유학생 ... 아버지 역시 당신의 생애 동안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 당신의 시대로 말하면 일제 식민 통치의 시절이었는데다가 당신 자신은 바로 그 식민 당국의 골수 관리의 신분이었는데도 말일세. 그런 신분이나 처지에도 선친은 해가 바뀌는 이 날 이면 해마다 빠짐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셨다는

9) 김주연, 『제의와 화해』, 『문학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1987, 254-256면.

거네.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허물없이 함께 어울리셨다는 거야. 그것은 다른 사람들 역시도 이곳에서 아버지를 허물없이 용납해 주고 있었다는 뜻이 되지. 선친은 그 자랑스럽지 못한 신분으로 하여 당신이 산을 오르는 데엔 남달리 위태로운 뜻이 있었을 텐데도 말일세. 하지만 선친이나 이곳 사람들 간엔 그 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허물거리가 생긴 일은 한번도 없었다니까. 이곳에서의 일은 그때부터 서로 간에 그만큼 믿음이 깊었다는 말이 되지. 그래 선친은 그후 8·15를 맞고 6·25를 겪어 넘기면서 산 아래선 때로 마루 밑 땅굴살이까지 해야 하는 온갖 곤욕을 치러내면서도 이곳만은 해마다 찾아올 수가 있었다니까. (83-84면)

제왕산에 오른 사람들은 이렇듯 어떠한 공통의 속성과 정체성으로도 묶이지 않은 채 그 텅빈 공간에서만 교응한다. 임의적 특이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까닭에 그들은 사회를 형성할 수도 없으며 옹호해야 할 어떤 표상 같은 것이 공유되지도 않는다. 아무런 정체성도 없으며 귀속될 정치화의 문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을 공동체라 지칭했지만, 실상 공동체를 규정하는 내재(內在)주의적인 어떤 이념이나 고정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전체의 영역으로 응집할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산의 아래와 산의 위, 곧 세속의 질서와 제의의 질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산위에서의 경험이 집단 무의식 저편으로 밀쳐져야 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함께-있음의 비밀을 공유하는, 부끄러운 어떤 비밀을 공유하는 밝힐 수 없는 공동체이다. 함께-있음은 곧 마주함인데 그것은 '의심의 여지없이 본질적으로 공동체 특유'¹⁰⁾의 속성을 지닌다. 그렇게 우리는 제왕산의 '회중'을 공동체라 명명하되 그것의 고유한 공통항을 발견하기가 곤궁하다. 굳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한, 면책에의 기

10)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16, 130면.

만적 행위자들의 집합이란 음험한 엇봄조차도, 대부분 평범하고 선한 사람들의 등반이란 점에서 그것은 온당치 못한 규정이다. 오히려 그곳은 존속되거나 정착될 수 없는, 그리하여 포착할 수도 없는 무위(無爲)의 매혹이 머무는 공동체라 하는 편이 나올 듯하다.

역사에 충만해 있는 압제나 그로 인한 집단적 고통으로부터 위안 받고 치유될 수 있는 공간이라면, 천왕산 제의는 규정짓기 어려운 어떤 공동체의 몫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삶의 필연으로 끼쳐드는 공포를 감내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과시켜 행위로 치환함 또한 가능하다. 역사적 사건을 신화적 범주로 변환해버리는 이 순환론에 의해 그것은 영원회귀한다. 그 순환론은 천왕산의 사건에 초시간적 의미를 부여한다. ‘낙원적인 지상의 회복’을 위하여 더럽혀짐은 깨끗이 정화되어야 한다. 그 생명 회복이 제왕산 의례의 용서이자 화해로 받아들임은 이러한 집단적 사고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영원회귀의 반복은 그렇게 치유의 과정이 수반된다. 시간을 무화시킴으로써 주기적으로 자신들을 재생하려는 욕구에서 원형적인 행위의 반복¹¹⁾이 일어난다. 스스로 역사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시간의 소거야말로 영원회귀 신화의 본질에 속한다. 그렇게 영원회귀의 시간 속에서, 현실의 죄에 대한 책무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때 제왕산은 마치 소도(蘇塗)와 같이 어떤 죄도 사해지는 용서의 공간¹²⁾으로 종교적 색채가 강해진다. 종화는 그곳을 신화적 해방의 영토로 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래하여야 한다.

종화의 상징은 침묵이거나 물입을 통하여만 유지 가능하다.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이는 무위 공동체의 그 은밀한 침묵만이 그것을 신성하게 지켜낼 수 있다. 그것은 민속학자 조승호가 간절히 염원하는 수구의 세계이다. 그는 지켜낼 능력이 없음에도 불

11) M. 엘리아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79, 123면.

12) 이정숙, 『「비화밀교」 다시읽기』, 『현대소설연구』 30호, 2006.6, 149-150면.

구하고 그것의 방어에 전위(前衛)가 되고자 한다. 종화의 동일성을 찬양하는 상징적 공간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는 정치적인 것의 팽창하는 힘과 맞서 있다.

시각은 대략 12시 5분 전. 이젠 아무도 함부로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뭔가 내게 암시 어린 이야기의 서두를 꺼냈다가 입을 다물어버린 조 선생도 그것을 다시 이어 나가려는 기색이 없었다. 분지는 이제 정상의 하늘을 벌겍게 물들인 햇불의 화광과 그 불꽃들이 한데 엉켜 일렁이는 상형(象形)의 소리뿐 그저 조용하고 무거운 정적 속에 휩싸여 있었다. 그 조용한 산정의 하늘엔 초저녁부터 흩뿌리던 눈발마저 깨끗하게 걷혀 있었다. 사람들은 미구에 닥쳐올 어떤 엄청난 변조라도 맞이하려는 듯 그렇게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토록 그 거대한 정적은 어떤 엄청난 폭발이라도 숨긴 듯 불온스런 기다림의 기미가 역력했다. (87면)

제왕산 제의는 공동체 전체의 죄와 과오를 소진시켜 버리고 무효화해 버리는 제의적 정화¹³⁾의 순환 형식을 완벽하게 구현한다. 여기서 자정은 정화되는 시간의 강도를 지닌 상징으로 솟아오른다. 공동체 전체가 이 시간의 분기에 의하여 하나의 운명 속으로 재차 통합된다. 이곳의 침묵은 더욱 응축되어 신성을 고양시킨다. 선달 그믐에서 정월 초하루로 바뀌는 제왕산의 시간의 재생은 이 공간을 지배하는 정연한 통일성의 체계를 다시 확고히 한다. 그곳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지배하는 정당화의 세계로 자정은 그 시간의 통과를 알리는 신성한 재생의 상징으로 주기적인 체계의 순환성을 엄격하게 규정짓는다. 시간이 그렇게 순환적으로 재생할 때, 역사는 소거된다. 주기적인 재생의 체계에서 정화가 이루어진다. 제왕산의 불을 켜는 의식, 소음, 절규 등은 제의적으로 악마를 추방하는 일종의 정

13) M. 엘리아데, 앞의 책, 82면.

화 과정에 해당한다. 공동체 내부에 끼쳐든 악을 추방하고, 그렇게 정화된 그들은 다시 세속으로 돌아간다.

제왕산은 역사적 시간이 다시 무효화되고 태초의 정화된 시간으로 돌아가는 공간이다. 물론 그것은 그 제의가 신성함을 잃지 않고 영원회귀하는 신화적 시간을 지속할 때 재생 가능할 세계이다. 민속학자 조승호는 제왕산의 제의가 이러한 신화적 의미를 지니고 주기적으로 반복되기를 염원한다. 그곳은 자신의 선친이 그러했던 것처럼 역사의 죄를 무화시키는, 그렇게 용서의 공간으로 머무르기를 그는 희구한다. 이때 용서는 분명 “자기 정화와 해방의 원리이자 교리이며 비밀의 언어를 순결하게 영속시키는 실천”¹⁴⁾ 행위이다. 주기적인 집단 의례를 빌어 음험한 개인의 허물을 덮자는 기만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시간의 재생으로, 영원회귀될 신성의 황홀함으로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는 인간집단의 숙명이기도 하다. 제왕산 공간의 무서운 침묵이나 혹은 주술적 집단 소음은 그렇게 신성함을 고양시키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파괴할 ‘엄청난 변조’의 조짐으로 맞서온다. 그것은 신화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을 가르는 전혀 다른 세계를 구성할 흐름이자 힘이다.

3. 비화의 넘어섬

중화와 비화(秘火)는 하나의 의미로 중첩되기보다 각각의 층만함으로 팽팽하게 마주한다. 은밀하게 간직되다가 또다시 불의 제전을 일궈낸다는 의미에서 중화가 비화의 의미를 덧씌워 얻게 됨이 결코 아니다. 영원회귀되는 중화의 그 유구한 관습이 위협을 받는 지점에

14) 장윤수, 「텍스트 생산의 담론 구조, 이청준의 『비화밀교』」, 『현대소설연구』 27호, 2005.9, 349면.

서 비화는 그것의 이름을 대신한다. 그것은 하나의 생명이 지닌 수 겹의 모순되는 힘으로, 그 관습의 코드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의 민속적 기원을 갖고 있으나 전혀 다른 세계로 폭발해 버리는 가역적인 힘이 된다. 종화의 세계는 침묵에 의해 유지되는 무위(無爲)의 공간이다. 침묵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은폐하는 거짓이고 기만이기 일쑤이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분출하는 현상의 무질서를 차단하고 억제한다. 종화는 영원회귀하면서 그 무질서를 무력화시키고 다시 침묵의 안정화를 복위시킨다. 여기에 비하여 비화는 종화의 그 동일성을 거부하고 타자의 숨결에 다가가서 그 숨결을 나누려는 힘이다. 영원회귀의 종화에 위협이 되는 반동의 힘으로 비화가 주어진다. 그렇게 비화는 종화의 악순환으로 타자의 응답을 기다리는 넘어섬이다. 그러한 전도의 거센 흐름을 포착하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비화밀교』에서 '나'의 글쓰기가 된다.

비화는 종화의 넘어섬이며, 그렇게 위반을 통하여 비화는 밀교의 반복되어야 할 침묵을 파기한다. 넘어섬의 근거에 정치적인 것이 놓인다. 그것은 작가 이청준이 소설쓰기를 통해 수행한 사유의 핵심을 이룬다. 『비화밀교』에서 침묵의 넘어섬이란 공동의 존재를 향해 나아감을 의미한다. 김우창은 그 넘어선 자리에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것이 정치 공동체¹⁵⁾임을 지목하는데, 『비화밀교』가 구상하는 세계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 밝히기 어려운 공동체가 타자를 받아들이며 인간들 사이의 소통을 도모하는 사건은 정치적인 것¹⁶⁾이라 한정할 수 있다. 『비화밀교』는 그 넘어섬의 징후를 다 음과 같이 포착한다.

15) 김우창, 앞의 글, 133면.

16)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앞의 책, 140면.

도열의 앞면 어디쯤에선가부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번져 오르기 시작했다. 아아, 아아—, 그것은 마치 입속을 땀도는 낮은 신음 소리나 비탄과 비슷한 지하의 합창 소리 같은 것이었는데, 소리가 한 번 번져 오르기 시작하자 그것은 순식간에 뒤면으로 뒤면으로 수심 깊은 물결처럼 파도쳐 전해 갔다. 그리고 어느새 우리들을 지나서 대열의 후미까지 휩쓸어버리고 있었다. 분지는 삼시간에 온통 별통 주변의 웅웅거림처럼 진원을 가릴 수 없는 기이한 합창 소리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절정의 절규로 폭발할 것처럼 낮으면서도 힘차게 부풀어 올랐다. 누가 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중략) 한데도 소리는 끊임없이 회중을 물결치고 있었다. 사람들을 거대한 하나의 소리의 덩어리로 만들어가고 있었다. (88면)

전시복 차림에다 지휘봉까지 휘둘러대며, 작자의 위세가 말할 수 없었어. 그때의 학생들이란 대개가 우리 조선인이었는데, 위인은 게다가 입만 열면 늘상 조선인에 대한 모욕적인 욕설질이었지... 한테 언제부턴가 교장이 강단 위로 올라서기만 하면 학생들의 대열에서 이상한 소리가 번져 오르기 시작했다. 어디서 누가 내는 소리 줄도 모르게 대열의 곳곳에서 웅웅 소리가 사방으로 떠돌아다니곤 한단 말이야. 아까 자정 때처럼 입을 다문 채 입속소리를 코로 뱉으니 선생들이 미친 듯 대열을 갈고 돌아다녀도 범인은 하나도 잡아낼 수가 없었지. 선생이 다가오면 소리를 멈췄다가 지나가면 다시 소리를 울리곤 했거든. 감히 누구도 교장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나설 수가 없었던 때였지. (108면)

이 웅얼거림은 전혀 다른 상황과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소리의 익명성이 지닌 전언은 다를 바가 없다. 랑시에르에게는 이 소음을 말로 듣게 만들 때 정치가 시작된다.¹⁷⁾ 제왕산의 회중이든 조희

17)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해방된 관객』, 현실문화, 2016, 86면.

대의 학생들이든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자 하며, 자신들에게 할당되지 않는 몫을 나누고자 한다. 그들의 응얼거림은 결코 소음이 아니라 참여를 외치는 소리이고자 한다. 그렇게 인간의 몫을 지닌 소리를 타락한 거짓 언어와 대립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무방하다. 곧 이 소리는 폭압적 통치 이데올로기의 선전에 동원되고 독점되면서 오염된 언어, 더 이상 진실이나 진리를 담지할 수 없는 허위화된 언어에 대한 반(反)언어¹⁸⁾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억압되고 은폐된 현실에서, 여전히 침묵의 질서를 강요하는 현실에서 그 임의의 공동체는 바깥을 향하여 응얼거림으로써 자신들의 존재를 증거하고자 한다. 그것은 자신들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방식의 항의이며, 나아가서 지배당하는 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공동체의 결집을 위한 무의식적 움직임이다. 그것은 예시에 드러나 있듯이, 일제 강점기라는 굴욕의 시대가 되었던, 그 이후 전개된 독재라는 폭압의 시대가 되었던 동일한 구도로 압도해 온다.

여기서 종화의 영원회귀하는 침묵은, 그것이 정화와 재생이란 순환을 통하여 현실의 부조리를 묻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 반복의 패턴은 재귀의 동력을 상실하고 만다.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민속학자 조승호가 고수하고자 한 종화의 신화성이 간직되기 위해서는 여기 소음들이 다시 침묵 속으로 흡입되어야 한다. 조승호에게 다가오는 새해는 매년 시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카오스로부터 코스모스로 옮겨가는 신화적 순간의 반복이어야 한다. 혼돈으로부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그가 말하는 ‘용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속죄양을 통한 정화의 공간, 제왕산에서의 불의 소멸과 재점화는 그에게 통과제의를 구성하는 요소¹⁹⁾이다. 이 제의적 모티프

18) 장윤수, 앞의 논문, 349면.

19) M. 엘리아데, 앞의 책, 101면.

가 유지된다면, 일제 강점하의 ‘일본도’를 찬 친일이든 독재하의 ‘사복 사찰’의 부역이든 용서에 의해 화해된 세상 속으로 어우러져 들어가면 그만이다. 그곳은 정치가 부재하는 공간으로, 그들 집단이 맞이했던 신화성의 떨림은 강자의 논리에 순치되는 기만적 경험에 불과하다. 바다우는 이 숭고한 것을 포기해야, 그리고 이 지점에서 부조리를 인식할 때 정치적 사건²⁰⁾이 가능해짐을 선고한다. 그렇게 웅얼거림은 침묵에 흡수되지 않고 공동체의 소리로, 소통의 회로를 확보한 목소리로 전환될 때 정치적인 것으로 입지를 얻는다.

제왕산 공동체의 “입속을 맴도는 낮은 신음 소리나 비탄”은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절정의 절규로 폭발할 것처럼 낮으면서도 힘차게 부풀어 오른다. “소리의 물결이 나를 스쳐갈 때마다 이상스런 전율을 경험”(88면)한다. 그곳에 어떤 뜨겁고 위협적인 힘이 있음을 ‘나’는 느낀다. 그 탈주하는 힘이 더욱 가시화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장화대에서 한 젊은 무리들이 추어대는 ‘햇불 춤’이다. 그 춤은 ‘원시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으로 주위 분위기를 휘어잡’(94면)는다. 그 춤꾼이 제왕산 제의의 순화적 패턴을 가로막는다. 장화대(藏火臺)는 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종화주에게 불씨를 다시 맡기는 장소이다. 젊은 춤꾼들은 장화대의 접근을 저지하면서 “기이한 신음소리까지 도해 내”(94면)고 있다. 제의의 신성한 종결을 저지하는 춤꾼은 “밤을 통틀어 사람들을 지배해 온 그 보이지 않는 산위의 질서에 대한 파격이자 이단”(93면)이다. 오직 조승호만이 “차라리 무아경을 가듯이 계속 의연하게 장화대로 걸어”(95면)가서 햇불을 던져 넣는다. 그는 종화주에게 불씨를 되돌려줌으로써 제왕산의 제의를 영원회귀의 저편에 다시 가두어두고자 한다. 그 순간 모든 정체성을 박탈하고 그 텅빈 공간에서만 무한히 반복되는 성스러운 침묵이 우발적으로 분출해버린 소란스러움을 삼켜 버린다.

20) 알랭 바다우, 앞의 책, 139면.

웅얼거림이 그러했듯 이 출판은 침묵의 경건함에 위배된다. 이 해체된 무리는 악마적 힘²¹⁾을 지니고 주어진 질서를 넘어서고자 한다. 조승호의 관점에서, 이들은 치료와 통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위태로운 경계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청준 소설에 흔히 보이는 “가시적 현실 속에 감춰 있는 어떤 진실을 꿰뚫어 보려는 위험한 욕망”²²⁾이며 모험이다. 그 넘어섬을 「비화밀교」는 정치적인 것의 위상에 고정시킨다.

언제부턴지 거기 진짜 화광이 제왕산의 검은 하늘을 별장계 물들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산의 능선끼로는 바야흐로 즐기 즐기 햇불들의 행렬이 용암의 분출처럼 넘쳐 내려오고 있었다. 신전은 이미 불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제단과 신전을 태우고 난 불길의 하늘과 산과 누리를 불태우며 먼 함성의 합창 소리 속에 아래로 아래로 넘쳐 내려오고 있었다. (132면)

제왕산의 제의는 그 반복의 패턴에서 거대한 파괴로 이렇듯 귀결된다. 이 놀라움, 전복, 그리고 비결정을 두고 바디우는 모든 정치의 시작인 사건²³⁾이라 규정한다. 이 정치적 사건은 인간적 현실을 직조함으로써 인간과 함께 다가온다. 정치의 금기로 차단하고자 한 제왕산 제의의 속된 것에 대한 정화는 여기서 난감한 지경으로 밀쳐진다. 신성함의 고양된 분위기는 이 세속화의 물결에 압도당하고 만다. 정치적인 것은 금기에 의해 유지되던 그 성스러움을 그렇게 인간의 영역으로 돌려놓는 세속화의 과정을 제시한다. 「비화밀교」는 성스러운 것의 전복을 거쳐 정치적인 것이 다가오는 이 ‘비화’의 메커니즘을 놀랍게 통찰한다. 영원회귀의 종화를 인간적 외침을 간직

21) 조르조 아감벤, 조형준 역, 『내전』, 새물결, 2017, 88면.

22) 오성근, 「갈려 있는 자의 시선」, 『삶을 위한 비평』, 문학과지성사, 1978, 262면.

23) 알랭 바디우, 서용순 역, 『철학과 사건』, 오월의봄, 2015, 71면.

한 비화로 대체해 버리는 이 전도의 과정에는 절대자나 신의 몫이 아니라 인간의 몫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공리의 이념이 수반된다. 신성한 것에 인격을 저당해 버리는 제의가 아니라 세속적 삶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고 궁극으로 정당한 몫을 배당 받고자 하는 평등한 인간의 자유 의지가 여기에는 깊게 스며들어 있다.

이청준의 소설에 내장된 “정치적인 것의 특징이 자유와 평등의 역설적 결합에서 비롯”²⁴⁾된 「비화밀교」의 경우도 다를 바 없다. 제도화된 것을 넘어서는 그토록 끈질기게 따라 붙어 있는 계율을 벗어 버리는 항수가 이청준에게는 자유이다. 그것은 공동의 물질 삶에서 개체를 분리하고자 하는 근대 초기의 단순한 외침을 훨씬 초과하는 이념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청준에게 자유는 사유의 심급에 처한 관념의 모험에 해당하는데, 그 심각한 주제는 「비화밀교」에서 정치적인 것의 발현이란 문제로 분출한다. 자유는 개인을 공동의 행복으로 제약코자 하는 평등에 대척되는 개념으로 다뤄지기 쉬운데, 그러나 정치적인 것의 작동은 그러한 논리를 거부한다. 랑시에르는 정치적인 것의 유일한 보편이란 평등²⁵⁾뿐이라고 단정한다. 평등은 아무나와 아무나 사이의 동등함을 전제하려니와, 정치적인 것은 이 평등의 과정에서 실현된다. 제왕산의 정치적 사건은 제의 과정을 무효화시키는 ‘용암의 분출처럼 넘쳐’남에서 비롯된다. ‘제단과 신전’을 불태워버리는 이 불온한 세력은 산 아래로 물결쳐 넘친다. 사람들의 소리를 침묵으로 매장해온 제왕산의 제의는 거대한 위반의 힘에 의하여 파괴된다. 이제 제왕산은 신성의 위계로 반복되는 공간이 아니라 평등을 증명하는 공동체의 장소를 구축한다. 그곳에 끊임없이 회귀하던 금기의 계율이 벗겨졌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또한 이청준이 추구한 자유의 구현이기도 하다.

24) 김남혁, 『파라텍스트 이청준』, 케포이북스, 2015, 239면.

25)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117면.

4. 공안과 소설의 위상

정치적인 것은 어떻게 소설에 기입되는가. 『비화밀교』는 이 질문에 단순히 재현의 논리로 응답하고자 한다. 정치적인 것만이 비로소 소설의 영역에 편입될 수 있다는, 그렇게 제왕산의 공동체는 정치적인 것으로 분출됨으로써 비로소 소설의 사건으로 인유될 수 있었음을 『비화밀교』의 플롯은 종결에 이르는 그 심층에서 내밀하게 드러낸다. 이 메타서사는 이청준이 자신의 소설들을 통해서 펼쳐내온 소설론을 담아낸다. 저자는 『비화밀교』가 “자신의 예배소와 신전에서 내몰린 밀교의 교주”(131면)인 조승호의 “참담스런 패배에 결정적 빛을 지고 썩어 나오게 된 썸”(132면)이라 표명한다. 이 메타 담론에는 민속의 재현 불가능성, 나아가서 공안에 대한 원천적 부정이란 정치적 목소리가 내재되어 있다.

소설쓰기에서 자신의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이청준에게 창작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그에게 소설로 대별되는 글쓰기는 진술 공포증을 불러오는 난감한 처세의 문제였다. 자아의 진실이 옹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작가는 ‘관찰당하는 자의 절망’²⁶⁾에 직면한다. 『병신과 머저리』나 『소문의 벽』에서 자기 진술의 공포는 작가가 처한 곤혹스런 상황을 포착한다. 타자와의 열림이 폐쇄된 사회에서, 더욱이 양극으로 대립되는 이념 사회에서 어떤 선택적 발화를 한다는 것은 극도의 위협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불안한 노릇이다. 이청준이 소설가의 과업에서 일차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것은 관찰당하는 자의 공포이다. 공인으로서의 작가이기보다 자기의 구원이 절박했던 소설쓰기에 대한 이청준의 질문은 『지배와 해방』(1977)에 이르기까지 지속된다.²⁷⁾ 『시간의 문』(1982)에 이르면, 그것은 자의식의 문

26) 오생근, 앞의 책, 266면.

27) 『지배와 해방』에서 소설가 이정훈은 ‘자기 위로나 구제’를 위해, 그것의 실패의

제가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전환된다. 발화자로서 작가의 위태로운 처신에 관한 질문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여야 하는가 하는 작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질문으로 전환된다. 『비화밀교』는 『시간의 문』에서 문제삼았던 작품의 주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와 동일 지평 위에서 글쓰기에 대해 사유한다.

조선생은 한마디로 이날 밤 나에게 하나의 어려운 공안(公案)을 제공해 온 것이었다. 그는 이날 밤의 산행에 나를 동행 시킴으로써 기이한 소설거리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소설로 씌어질 수 없는 숙명적 자기 금기를 수반한 소재였다. 영원히 세상에 알려서는 안 되는 비교의 기이한 예배 행사, 그것이 세상에 알려질 때는 그것으로 그만 교리와 예배처가 소멸되고 말 운명의 지하밀교 행사... 조선생은 그 교단의 힘이나 세상에의 기여가 그것의 보안성에 근거해 온 것으로 누출을 한사코 경계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그는 내게 하나의 충격적인 소설거리를 보여주고 나서 동시에 그것을 쓰지 못하게 하는 침묵의 굴레를 씌운 것이었다. (122면)

밖으로 누설되어서는 아니 될 ‘금기를 수반한 소재’가 작가 앞으로 놓인다. 조승호는 ‘침묵의 굴레’를 씌워 ‘나’의 소설 작업을 휘방함이 아니라 ‘소설의 공안’(127면)으로 제왕산 제의를 떠안기를 애초부터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 소설장이 친구’가 수행하여 온, 그에게 적합한 민속의 소설적 복원 사업이다. 그가 ‘글의 소재’로 삼아온 것이 ‘우리 민속과 세시기들’(58면)이니 말이다. 취재한 객관적 사실을 전형적인 서사구조로 재현하는 소설의 가장 보편적

상처에서 자신의 존재를 재건하려는 ‘복수심’에서 글을 쓴다. 이 자기 구축 행위는 이청준의 초기소설에 투영된 소설관에 그대로 투사된다. 그것은 궁극으로 ‘우리의 자유로운 삶’과 그 ‘삶에 대한 깊은 사랑’(134면)으로 점철된다. 이는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작가의 책무를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문』이나 『비화밀교』의 소설관과 잇닿은 측면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 일반 원칙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것은 작가의 자의식이나 입장과는 무방하게 언제나 가능할 기능적인 소설 구현의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나'는 그 재현의 논법에 직면하여 당차게 대립각을 세운다. 『퇴원』에서 비롯되어 『소문의 벽』에서 예각화된 '진술 불가능성'이라는 이청준의 정치적 모티프가 여기서 다시 제기된다. 진술 불가능성이라는 토끼는 "침묵을 강요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망각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자의식"을 동반하며, "침묵을 강요당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는 주체의 의식상황과 결부"²⁸⁾되어 있다. 『소문의 벽』의 침묵이 타자와 공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과 관련되어 있다면, 『비화밀교』에서는 텍스트의 해석에 대한 작가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두 부류의 '진술 불가능성'은 차이를 지닌다. 즉 초기 소설인 전자가 진술공포증에 직면한 수동적 말하기라고 한다면, 중기로 접어드는 후자는 능동적 말하기라 지목할 수 있다. 『비화밀교』의 작가 '나'는 '공안의 울타리'(125면)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소설쓰기가 불가능함, 곧 진술 불가능성에 직면함을 토로한다. '나'에게 소설은 "애초부터 그 공안 밖에서"(133면) 그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안(公案)은 공안(公安)이 되며, 그것은 치안(治安)이란 안정적 행정 단위로 치환된다. 그곳에 이미 충만해져버린 부조리, 그것의 표현 형식인 소음들을 억제하고 다시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금기의 개념으로 제왕산 제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치안이 목적하는 통제의 수단에 불과하다. 조승호는 실제 제왕산에서 "미구에 닥쳐올 어떤 엄청난 변조"(87면)를 그렇게 침묵의 질서에 가둬두고자 한다. 이에 맞서 작가 '나'는 그 거대한 침묵에서 "어떤 엄청난 폭발"(87면)을 기다리는 불온한 기미를 긴장과 전율에 찬 신체로 감지

28) 김영찬, 『이청준 격자소설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2호, 2005.10, 333면.

한다. ‘나’에게 ‘소설질’은 “조선생과는 반대로 그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의 세계와 삶의 현상들에 대해 인간 정신의 밝은 빛을 쏘아 비춰 그것을 가시적 삶의 질서로 끌어들이려는 노릇”(122면)이다. ‘나가’ ‘진술 불가능’에 맞서 그것의 담론화에 이르는 방도는 그곳의 내부에 잠재된 정치적인 것을 발견하고 그것의 진실을 언표하는데 있다. 『비화밀교』에서 소설쓰기는 그렇게 정치적인 것의 정초에 달려 있다. 본래 정치적 주체화는 치안적 구성 속에 주어지지 않은 어떤 다중(多衆)을 생산하는데 있다.²⁹⁾ 그것은 치안의 논리와 모순되는 것으로 제기되며, 치안 질서와 단절하는 실천이다. 그렇게 ‘나’에게 소설쓰기는 통치의 기술에 속하는 치안의 짜임과 단절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정치적인 것을 정당하게 목도하고 소음으로 치부했던 외침을 담론으로 알아듣게 만드는데 있다.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작이나 은폐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 자체의 힘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질서와 운명을 스스로 증거하게 마련인 것이라고나 할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어쩌면 보다 직접적인 공안의 실현이자 나의 소설에 앞선 해답이랄 수 있으리라. 도대체가 하나의 사실이나 힘의 질서라는 것은 그 증거의 길이 지나치게 억제될 때 그것의 존재나 질서 자체를 궁극적인 덕목으로 지탱해 나가려는 어떤 정신적인 조작의 틀도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그 조 선생의 정신주의의 무참스런 패배!)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제 이를테면 폭발일 것이었다. 그리고 심히 부끄러운 일이지만, 나의 이 이야기는 그러한 폭발에서 간신히 출구를 만나게 된 셈이었다. (132-133면)

여기서 ‘폭발’은 우리가 이미 정치적인 것으로 규정한 ‘넘어섬’이다. 그것이 소설의 운명을 한정한다. 그 넘어섬은 ‘감각을 통한 세계

29) 자크 랑시에르, 진태원 역, 『불화』, 길, 2015, 72면.

의 깨어남³⁰⁾이다. 그것이 비록 ‘비극적 완성’이라 하더라도 ‘만인의 삶으로 함께 완성’(133면)하는 이상적 공동체의 실현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물론 정치적 공동체의 문제이기보다 비밀의 나눔,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극하는 감각의 일깨움을 수반하는 문학 공동체로서의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제왕산의 이 ‘폭발’을 이끌어 낸 공동체는 어떤 내재주의적 질서에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동일성 바깥에서 타자와 응답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결성된 이 공동체의 출현은 여기서 ‘폭발’로 표현된다. 조승호의 ‘참담스런 패배’(132면)는 이 ‘폭발’과 더불어 귀결된다. 그렇듯 ‘소설의 공간,’ 조승호가 회구한 소설의 공간 또한 불가능성에 처한다. 그것은 실제 조승호의 승패를 떠나서, 불가능성을 확증하는 소설의 운명임을 이 서사의 대단원은 확정하고자 한다. 결국 소설은 공간의 ‘물’과는 다르게 그것과의 불일치이고 틈이며, 결국 그것의 넘어서이다.

『비화밀교』의 에필로그에 의하면, 소설은 정치적인 것의 표현이다. 억압되고 은폐된 현실을 텍스트의 표면 위에 복원하는 정치적 무의식이 작동한다는 점에서 소설은 정치적인 것의 흔적들이다. ‘어떠한 조작이나 은폐의 기도’에도 ‘자신의 존재와 질서’를 ‘증거’하는 과정은 소설의 운명이다. ‘어떤 정신적인 조작의 틀’도 이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는 못하며, 오히려 그 운명을 ‘무용한 것’으로 만든다. 그러한 소설의 운명은 일종의 ‘제왕산의 폭발’과 같은 절대 진실이란 ‘힘의 질서’ 아래 놓인다. 소설의 주체화를 강도 높게 외치는 이 소설관은 타자가 고정해 놓은 어떤 동일시도 거부하며, 오직 자신의 증거에 따라 그 사실의 뭉클을 구현코자 한다. 그것은 은폐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치안의 약순환을 저지하고 평등한 자들의 참여의 뭉클을 열어준다. ‘공간’의 표준이나 규범으로부터 소수자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정치적 잠재성이 그러한 사유의 내속을 가능하게 이끈다. “하늘과 산

30) 김우창, 앞의 글, 134면.

과 누리를 불태우며” 들려오는 ‘먼 함성’(132면)과 그 ‘폭발’은 ‘공안의 울타리’에 가둘 수 없는 소설의 ‘증거’이다. 정치가 그렇듯 소설 역시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며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던 것을 말로서 듣게 만드는 것이다.³¹⁾ 그렇게 소수자의 정당화 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설과 정치는 공통의 지평을 갖는다.

5. 소음에서 목소리로

다시 말하지만, 『비화밀교』는 1부, 2부, 그리고 에필로그 형식으로 체계를 세우고 있다. 그것은 사건의 진행을 분할하고 순차적 흐름을 지지하는 체계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압도해 오는 사건을, 돌발해 오는 사건을 중첩시키면서 진리 절차의 가능성을 창조하기 위한 방법이 되어 버린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이청준 소설에서 흔히 사용되는 격자소설의 이념을 취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사건의 안면과 바깥면에서 중층적으로 사건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리하여 절대 진리의 오류나 오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청준의 반성적 탐구 과정을 그 형식은 동반한다. 그것의 이면에서 타자에 대한 배려이자 인간애적 겸손을 엿보는 것 또한 가능하다. 문학적 의미 부여나 작가의 미덕에 대한 긍정을 넘어 그 형식 자체의 사회적인 발생적 맥락³²⁾을 추적함 또한 열려 있다. 『비화밀교』에서 이청준의 격자소설 양식을 참조함은 그것의 체계가 어떤 목적에서 짜여졌으며, 결국 그것은 제대로 효과를 얻고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1부는 마치 안쪽 이야기처럼 ‘제왕산 제의’를 매년 시행되는 풍속의 일례로 소개한다. 그 줄거리의 핵심에 종화의 영원회귀 모티프가

31)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226면.

32) 김영찬, 앞의 논문, 330면.

있다. 세속의 흠결을 무화시키고 정화된 인간 집단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신화적 상상력이 그 재래(再來)하는 ‘행각’(78면)의 내부를 황홀하게 지배한다. 그것은 선달 그믐밤 제왕산 분지에 올라 종화를 나누어 햇불들을 밝히고, 서로의 안녕을 묻고, 그리고 종화대에 그 불씨를 되돌려주면서 끝이 난다. 여기에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지는 바 하나는 서로의 ‘용서’(104면)이며, 다른 하나는 ‘비밀’(76면)이다. 그것은 제의 공동체에 흔히 요구되는 금기의 두려움을 동반한다. 그것은 회의하거나 질문할 수 없는 규범 그 자체의 테제로 주어진다. 그러한 초월적 금지의 영역은 결코 정치의 범주가 아니라고 바다우는 선언한다.³³⁾ 정치 부재가 지배하는 그 공간에서 민속학자 조승호는 비의스런 제의 공동체의 끊임없는 재귀를 회귀한다.

2부는 마치 바깥 이야기처럼 안쪽 이야기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장훈이란 이름을 가진 ‘나’는 제왕산에서 내려온 직후 제왕산 경험에 대하여 복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곳에 잔류했던 사람들이 행하는 ‘종화대’에서의 위반과 반항을 지켜본다. ‘나’는 제왕산에서 흥미롭게, 또는 신비롭게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그 무위의 공동체가 발산하는 ‘자기 위엄과 자존심’(109면)을 감지한다. ‘불길의 흐름과 고조된 분위기’(83면)에서 그들이 발산하는 웅얼거림, 그리고 종화대에서의 출판은 제의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 요구되는 침묵의 비밀, 그 금기를 넘어서는 행위들이다. 그것은 이윽고 불온한 ‘노골적 광기’(113면)로 변화하여 ‘제단과 신전’을 불태우고 산 아래로 밀쳐온다. 제의의 구조를 붕괴시키는 이 사건, 그 넘어섬은 정치적인 것이 지니는 탈주의 힘을 지닌다. 매혹이자 용서인 종화의 재귀는 결국 치안이 도모하는 평정의 기만에 속한다. 반복적으로 압도해오는 이 기만상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목소리를 평등하게 나눔이 곧 정치적인 것의 실체이다.

33) 알랭 바다우, 『정치는 사유될 수 있는가』, 113면.

금지를 넘어선다는 것은 “아무 구별 없이 서로 똑같은 인간”(83면)으로 진정 일어서는 것인데, 이는 관념의 해방이자 감성의 나눔에서 문학의 정치를 보고자한 랑시에르의 정치적인 것의 실현 방식이라 할 만하다. 그렇게 에필로그 격으로 설정된 마지막 부분은 소설의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 한 겹을 더하여, 소설의 줄거리의 정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구성의 실험은 소설이 결코 정치일 수 없다는 고정화된 일반론에 대응한다. ‘겹이 두꺼운 소설’(128면)을 통해 ‘나는 ‘소설의 공간’이 아니라 ‘소설의 정치’가 가능할 방법을 찾게 된다. ‘소설의 공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치적인 것인가를 인식하는 작가의 책무나 소양이 중요했던 셈이다. 작가는 단지 그 옳음의 장면을 발견하여 그 자체를 객관 반영했을 뿐이라고 부끄럽게 고백하고 있지만, 그 공간을 거부하는 문제는 작가의 양식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민속을 치안으로 환원하는 공간을 거부함으로써 ‘비화밀교’는 정치적인 것을 생성한다. 그리하여 그 공동체의 소음은 소통 가능한 목소리로 평등하게 발산되기 시작한다.

■ 참고문헌 ■

- 김남혁, 『과라텍스트 이청준』, 케포이북스, 2015.
- 김명렬, 「정치와 개인」, 『문학과 정치』, 민음사, 1980.
- 김영찬, 「이청준 격자소설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2호, 2005.10, 329-353면.
- 김인환, 「천로역정」, 『외국문학』 제7호, 1985.12.
- 김우창, 「시와 정치」, 『문학과 정치』, 민음사, 1980.
- 김주연, 『문학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1987.
- 오생근, 『삶을 위한 비평』, 문학과지성사, 1978.
- 이정숙, 「『비화밀교』 다시읽기」, 『현대소설연구』 30호, 2006.6, 141-163면.
- 이청준, 「비화밀교」, 『이청준문학전집』 중단편소설 10권, 열림원, 2002.
- 장운수, 「텍스트 생산의 담론 구조, 이청준의 『비화밀교』」, 『현대소설연구』 27호, 2005.9, 341-359면.
-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박준상 역, 『밝힐 수 없는 공동체 /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16.
- 미르치아 엘리아데, 정진홍 역, 『우주와 역사』, 현대사상사, 1979.
- 알랭 바디우, 서용순 역, 『철학과 사건』, 오월의봄, 2015.
- 알랭 바디우, 박성준 역, 『정치는 사유될 수 있는가』, 길, 2017.
-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역,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09.
-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13.
- 자크 랑시에르, 진태원 역, 『불화』, 길, 2015.
-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역, 『해방된 관객』, 현실문화, 2016.
- 조르조 아감벤, 조형준 역, 『내전』, 새물결, 2017.
- 프레드릭 제임슨, 이경덕·서강목 역, 『정치적 무의식』, 민음사, 2015.

<Abstract>

The Political and the Destiny of the Novel —A Study of “Biwhamilkyo”—

Song, Ki-Seob

“Biwhamilkyo” is a novel written by Yi Chong-jun. It reproduces the custom of a local community. It is a story of a year-end. People light a torch at the top of Mt. Jewang, exchange new year’s greeting, and climb down the mountain together. The last person who carried the torch has responsibility to keep the embers alive for next year. The annual event of the local community repeats as the ember-keeper lights the ember up at the end of another year. The ember becomes a torch annually. It is archetypes and repetition. This novel seems to describe religious custom of a local community greeting new year.

This novel, however, focuses on the political. It contrasts the ability and the inability of the political. It can be structured to binarity: the absence of politics and the realization of politics. The ability of the political is converting noise into voice. Political ability is made when the mumbling of people who carried the torch turn into voice of communication. As Jacques Ranciere mentioned, converting noise into voice means returning parts to those with no part.

Yi Chong-jun said a novel can be written when voice are made. A novel means those with no part recovering their parts and becoming the subjects of their voice. When people of a local community recover



their voices climbing down the mountain and claim their parts, the custom becomes politics. The political is formed from the destruction of order. A novel is a vehicle of searching the ability of the political. The ability of the political determines the destiny of novels.

Key words: the political, ember, archetypes and repetition, noise, voice, the destiny of the novel

투 고 일 : 2018년 1월 20일 심 사 일 : 2018년 1월 30일-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8년 3월 9일 수정마감일 : 2018년 3월 18일